

EYA NEWSLETTER

ENGLISH TITLES

FICTION

제목 : CONVICTION

가제 : 유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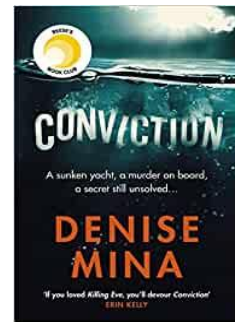
저자 : Denise Mina

출판사: Harvill Secker

발행일: 2019년 5월 16일

분량 : 384 페이지

장르 : 스릴러



★ 영화 배우 리즈 위더스푼이 이끄는 북클럽이 선택한 책.

★ "유럽을 무대로 펼쳐지는 한 편의 블랙 코미디, 쫄깃한 반전 이야기."- 『Broadchurch』의 저자 에린 켈리

어느 때와 같이 평범한 어느 가을 아침, 애나 맥도날드는 가족들 중 가장 먼저 일어나 부지런하게 아침을 시작했다. 하지만 그날 남편이 전한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애나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다.

애나는 모두가 아직 곤히 잠에 들어 있는 새벽, 혼자 깨어나서 자신만의 시간을 즐기는 것을 너무나 좋아했다. 그리고 그녀가 이 시간 동안 가장 즐겨 하는 일은 거의 중독되다시피 빠져 있는 ‘트리나 키니’라는 여성이 진행하는 범죄 전문 팟캐스트를 듣는 것이었다. 하지만 남편 해미쉬는 그녀의 이런 행동이 소름 끼친다며 매번 손사래를 쳤고, 왜 그토록 그녀가 자신만의 시간을 갈구하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눈치였다. 하지만 애나는 성공한 변호사이자 다정한 아빠인 그에게 별 불만이 없었고 자기 정도면 꽤 괜찮은 부부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믿고 있었다.

살금살금 복도로 나온 애나는 팟캐스트의 최신 에피소드인 ‘죽음과 다나’편의 내용을 미리 확인해보았다. 이번 에피소드는 바다 한 가운데, 한 초호화 돛단배에서 벌어진 일가족 살인 사건인 것 같았다. '다나'라는 명칭은 사건이 일어난 배의 이름으로 프랑스 브르타뉴 근방 비스케이만 근처에서 침몰되었고 요트에 타고 있던 아버지와 그의 스물 한 살 딸 비올레타와 열여섯 소년 마크는 모두 살해당한 채 발견되었다. 하지만 그들의 비극적인 죽음에 얽힌 사실은 아직 베일에 싸여 있었고 다나라는 배가 사실 오랜 세월 동안 악령의 저주에 걸린 선박이라는 말까지 돌고 있었다. 현재까지 경찰 측에서는 유력한 용의자로 그 배에서 요리사로 일하고

있었던 아밀리아를 지목하고 있었지만 팻캐스트의 진행자인 트리나는 정황상 그녀의 알리바이가 확실하며 어쩌면 이 사건이 ‘레온 파커’라는 이 배의 주인이자 살해당한 것으로 보이는 아버지가 두 남매를 죽이고 스스로 자살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레온 파커’라는 이름을 들은 애나는 소스라치게 놀라고 말았다. 애나는 곧 바로 팻캐스트 웹페이지로 들어가 레온 파커의 사진을 확인한 후 그가 예전에 자신이 알았던 바로 그 친구 레온이라는 사실을 알아챘다. 애나는 오래 전 한 휴양지 리조트에서 일하던 중 우연히 그를 알게 되었고 한동안 좋은 친구로 지낸 사이였다. 애나는 최소한 그가 자기 자식들을 죽이고 자살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쯤은 확신할 수 있었다. 다정하고 사려 깊은 그에게 분명 어떤 불행한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이 분명해 보였다. 애나는 어서 빨리 친구 에스텔을 만나 함께 요가 수업에 가는 길에 이 충격적인 비극에 대해 털어 놓고 싶었다. 얼마 후 누군가가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울렸지만 애나는 아직 에스텔이 데리러 올 시간도 아닌데다 너무 이른 아침이었기 때문에 누가 잘못 집을 찾아온 것이라고 생각하고 서둘러 아이들의 도시락을 준비했다. 하지만 이윽고 다시 노크 소리가 들렸고 침실 안에서는 남편의 휴대폰 벨소리에 이어 그의 나지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리고 현관문을 향해 걸어가던 애나는 웬일인지 출근 복장 대신 편안한 옷차림으로 서 있는 남편을 보았다. 게다가 현관 문 앞에는 뜻밖의 인물, 그녀의 가장 친한 친구 에스텔이 요가 수업에 가는 복장치곤 너무나 화려한 원피스에 세련되게 화장까지 한 모습으로 서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옆에는 큰 여행용 가방도 함께였다.

남편 해미시는 두 딸을 거실 소파로 부르더니 자신은 이제 에스텔과 새로운 관계를 시작했으며 엄마 애나는 이 집을 떠나 근처에 마련된 아파트로 떠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오늘은 에스텔의 부모가 있는 포르투갈로 두 딸을 데리고 함께 갈 것이라는 말도 안되는 폭탄 선언을 했다. 남편의 일방적인 통보에 애나는 거의 정신을 잃을 지경이었고 홀로 큰 집에 남게 된 그녀는 하마터면 자살 시도까지 할 뻔했다. 하지만 그 대신 애나는 이 모든 고통을 잊기 위해 레온 파커의 죽음에 대해 파헤치기로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놀랍게도 에스텔의 전 남편이자 전직 록스타인 핀이 그녀의 집에 찾아왔다. 핀 역시 자신의 유명세로 혼란을 겪고 있는 중이었고 잠시나마 현실의 부침을 잊어낼 겸 에스텔과 함께 선박 살인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함께 여행을 떠나기로 했다. 하지만 핀의 유명세 때문에 애나까지 세간의 관심을 끌게 되고 여태껏 감추고 있던 그녀의 또 다른 고통스러운 과거가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된다. 애나는 그 귀신 들린 배와 레온 파커의 죽음과 관련된 진실을 과연 알아낼 수 있을까? 애나는 ‘애나’라는 이름을 갖기 전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던 것일까? 한 여성이 겪었던 비극과 살인 사건을 둘러싼 정교한 줄거리가 인상적인 스릴러이다.

<저자 소개>

데니스 미나 (Denise Mina)는 평단의 호평을 받고 있는 범죄 소설 전문 작가이며 전작으로는 두 작품 모두 다 'Theakstons Old Peculiar Crime Year of the Award' 수상작인 『The End of the Wasp Season』과 『Gods and Beasts』가 있다.

제목 : ACTS OF DESPERATION

가제 : 사랑 받고 싶어서 그랬어

저자 : Megan Nolan

출판사: Little Brown

발행일: 2020년 예정

분량 : 140 페이지 예상

장르 : 일반 소설



*** 마치 중독된 것처럼 불행한 사랑에만 계속 빠져드는 한 여자가 지난 연애와 섹스에 대해서 반추해보며 벌어지는 이야기**

‘그녀 (작품 속 화자이자 주인공, 이름이 소개되지 않음)’에게 사랑이란 이 세상 가장 큰 위안이었고 절대적인 믿음의 대상 즉, 종교나 마찬가지였다. 그녀가 원하는 것은 그저 한 남자에게 영원토록 사랑받는 일 단지 그것 하나였다. 하지만 그건 그녀의 지나친 욕심이였을까?

2012년 봄 더블린, 그녀는 도서관에서 키어런을 처음 봤던 어느 날 이후, 두 번째로 그를 다시 만났다. 한 갤러리의 조각상 앞에 서 있던 키어런은 그녀가 여태껏 보았던 남자 중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한 남자였다. 그는 누군가와 꽤 진지한 대화를 나누고 있으면서도 그녀와 은근히 긴 시선을 주고받았다. 마치 조각상처럼 견고하고 섬세한 몸과 특유의 유혹적인 손짓을 가진 그는 간혹 다소 잔인해 보이는 눈빛이 드러나긴 했지만 누구라도 매혹될 수밖에 없는 그런 남자였다. 그녀는 키어런을 바라보며 화끈거리는 성적 긴장감을 느끼는 동시에, 마치 고요한 무덤가에서 느낄 수 있을 법한 신비로운 애잔함을 느끼기도 했다. 마침내 두 사람의 눈이 다시 마주치자 키어런은 그녀에게 다가와 인사를 건넸다. 그는 자신의 이름과 함께 덴마크 출신임을 알려주었고 다음 날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며 휴대폰 전화 번호까지 선뜻 가르쳐주었다. 사실 이런 즉흥적인 만남은 그녀에게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겉으로는 늘 행복한 척, 혼자서도 잘 지내는 척하는 여자였지만 실상은 술에 취하지 않고서는 온전히 혼자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사람이 결코 아니었다. 때문에 그녀는 언제나 사랑에 빠진 상태를 유지해야 했고 늘 자신의 곁에 남자의 몸과 숨결이 있기를 바랐다.

키어런을 두 번째로 만나고 돌아온 날 역시 그녀는 진탕 술을 마셨고 언제나처럼 눈시울이 충혈되고 목에서 피가 나올 때까지 구토를 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그녀는 키어런에게 오후 두 시 자연사박물관 부근에서 만나자는 메시지를 보냈다. 그를 만나러 가는 길 그녀는 여전히 고통스러운 숙취에서 헤어나오고 있지 못했지만 홀로 그 고난을 견딜 필요 없이 누군가를 만나 정신없이 지낼 수 있게 되었다는 생각에 너무나 기뻐했다. 그녀는 사랑 그 자체보다는 사랑에 빠진 자신의 모습에 더 빠져 있었다.

키어런은 코펜하겐에서 비평가로 활동하던 중 더블린에 있는 아버지의 병환 소식을 듣고 그의

결에서 지내기 위해 이곳까지 와서 글을 쓰고 있는 남자였다. 그는 첫 데이트 내내 시종일관 진지한 태도로 일관하더니 저녁 즈음에는 자신의 스튜디오로 그녀를 데려갔고 그곳에서 둘은 첫 키스를 했다. 사랑의 기쁨에 취한 그녀는 과거의 사랑과 남자들에 대해서 되돌아보기 시작했다. 그녀는 언제나 남자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여자였지만 함께 술을 마시고 마약을 하고 섹스를 하는 것 외에는 남자를 어떻게 상대해야 할지, 어떤 식으로 진지한 관계를 맺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었다. 때문에 그녀는 애인이 있는 남자, 처음 본 남자 가리지 않고 순간의 끌림만 있다면 곧바로 잠자리를 가졌다. 특히 나이트 남자는 그녀의 손쉬운 타깃이었다. 그들에게 그녀는 차마 오르지 못할 나무 같은 여성이었고 '젊음'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특별한 존재가 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첫 번째 데이트 이후 레스토랑에서 일을 마친 그녀는 종종 키어런의 집으로 찾아가 데이트를 즐겼다. 그는 어린 시절 자동차 사고로 후각과 미각을 거의 잃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먹는 것에 아무런 특별한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었고 그 때문인지 모든 생활이 단순화되어 있었다. 한편 그녀는 키어런의 몸 곳곳에서 나는 체취에 점점 중독되어가고 있었고 어느 날 주방에서 일하던 중 그의 냄새가 곧 트러플 버섯의 향취와 매우 흡사하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는 왠지 모르게 그에게 더 끌리는 듯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더 많아질수록 그녀는 키어런의 특유의 그 엄숙함이 사실 어떤 혐오감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는 주변에서 일어나는 거의 모든 일들에 대해서 쉽게 화를 냈고 그녀가 보기엔 지극히 정상처럼 보이는 일들에 대해서까지 지나치게 적개심을 드러냈다. 때문에 그는 종종 길거리에서 다른 사람들과 시비가 붙는 일이 잦아졌고 그때마다 그녀는 마치 아기를 달래듯 키어런을 다독이기 위해 애써 그의 분노를 이해하는 척해야 했다.

몇 달 후, 그녀는 친구들과 함께 키어런과 갤러리에 가게 되었다. 하지만 키어런은 첫 만남부터 잔뜩 굳은 표정으로 불편한 듯 행동했고 그녀는 물론이고 그녀의 친구들과도 한마디도 나누지 않으려 했다. 주변에 흐르고 있는 어색한 분위기를 견디다 못한 그녀는 결국 키어런을 밖으로 데리고 나갔고 무슨 상황인지 그에게 물었다. 그러자 그는 그녀와 자신은 그저 함께 섹스를 하는 사이일 뿐이니 굳이 그녀의 친구들에게 친절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고 오히려 불만을 토로했다. 이번에도 사랑에 빠진 것은 오직 그녀 자신뿐이었다.

그녀는 왜 자신이 이토록 잘못된 사랑에 쉽게 빠져드는지, 혹시 자신이 이상 성욕자인 것은 아닌지 혹은 평생 짝사랑만 하게 되는 증후군에 빠진 것은 아닐까 의심하며 자신의 집착적인 사랑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돌아보기 시작한다. 어긋난 애정 관계에 사로잡혀 있는 한 여자가 마치 한 편의 수필처럼 자신의 내면과 사랑, 집착, 섹스, 가부장적 사회에서 겪는 불의에 대해 이야기하는 소설이다.

<저자 소개>

메간 놀란 (Megan Nolan)은 뉴욕타임즈, 선데이 타임즈, 가디언 등 유명 언론에 에세이 및 리뷰, 칼럼등을 기고하고 있다. 이 작품은 그녀의 첫 소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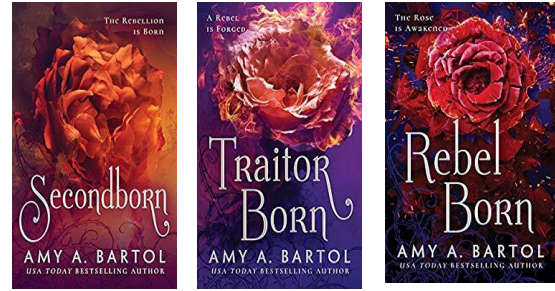
제목 : SECONDBORN SERIES VOL.1-3

가제 : 세컨본 시리즈 1,2,3

저자 : Amy A. Bartol

출판사: 47North

장르 : SF 소설



★ “영리하게 건설된 공화국의 세상 제임스 본드와 엔더스 게임의 요소들이 조합된 이 소설은 독자들을 극한의 긴장 상태로 몰아넣는다.”- 「북리스트」

1권: SECONDBORN (두 번째 아이) / 출간일: 2017년 8월 1일, 분량: 323페이지

열여덟 살 로젤이 살고 있는 이 세계, 페이트 공화국에서는 오직 한 가정의 첫째로 태어난 사람들만이 세상을 지배할 권리를 가질 수 있는 이상한 세상이었다. 지금으로부터 먼 미래, 기술이 발전하면서 의학 분야 역시 지금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혁신을 이루었고 덕분에 인간의 기대 수명 또한 확장되었다. 하지만 이는 곧 인구 과잉 문제를 가져왔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방침은 바로 한 가정당 최대 두 아이만 가질 수 있도록 허용하는 산아 제한 정책이었다. 따라서 둘째 이상으로 태어난 아이들은 모두 정부 방침에 따라 몰살되었다. 또한 이 정책에 따라, 첫째로 태어난 사람들은 자동으로 사회의 엘리트 계층에 편입될 수 있었고 가족의 부와 지를 몽땅 물려 받는 것은 물론 자손을 낳을 권리를 가질 수 있었다. 반면 둘째로 태어난 아이들은 태어나자마자 2등 시민으로 간주되었고 열여덟 살이 되는 시점이 오면 정부에게 끌려가 나라가 정해주는 직업을 가져야 했다. 그리고 너무나 당연하게도 이들에게 자식을 낳을 권리는 없었다. 이러한 가혹한 정책 때문인지 대부분의 가정에는 늘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고 첫째 아이들이 종종 알 수 없는 이유로 죽음을 맞이하는 기이한 사건들 또한 빈번했다. 첫째가 죽으면 법에 따라 둘째가 첫째가 누리기고 있던 모든 특권들을 승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족들 사이에서조차 언제나 잔인한 혐의 역학이 작용되고 있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 로젤은 바로 '둘째 아이'의 운명을 타고난 소녀였는데 자신의 불행한 운명을 짊어지는 것에 더해 집에서조차 편히 숨 쉬고 살 수 없었다. 로젤은 이 공화국을 세운 일명 '개국공신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상당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엄마 오타라는 로젤을 대놓고 싫어했고 첫째로 태어난 오빠와는 늘 껄끄러운 관계였으며 아빠는 이 모든 것을 방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대신 로젤에게는 대부 같은 존재인 전투 전문가 던이 있었다. 던은 로젤의 어린 시절부터 그녀를 훌륭한 전사로 만들기 위해 훈련시키고 있었다. 덕분에 로젤은 정부 군에 들어갈 확률이 높아 보였다. 로젤에게는 사실 특별한 점이 하나 더 있었는데 로젤의 가족의 유명세 때문의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이 TV 프로에 방송되고 있었기 때문에 로젤은 어린 시절 부터 다른 2등 시민 '둘째 아이들'과는 좀 다른 존재였고 은근히 그 사이에서도 따돌림을 받게 되었다. 하지만 운 좋게도 로젤은 정부에서 파견한 일터에서 클럽턴과 호손을 만나 친해지게 된다. 얼마 후, 억압적인 정치 체제에 반기를 든 반체제 인사들이 점차 반란을 도모하기 시작하고 로젤은 얼떨결에, 첫째 아들로 태어났지만 정부에 맞서는 것을 택

한 레이킨의 목숨을 구해주게 되었다. 한편 정부에서는 이런 로젤을 이용해 로젤의 엄마를 숙청하려고 한다. 게다가 셋째 아이들을 몰살하는 집단인 '에이전트 크로우'의 수장인 크로우는 악의를 품고 은밀히 그녀에게 자꾸만 접근하려한다.

2권: TRAITOR BORN (배반의 아이) / 출간일: 2018년 4월 17일, 분량: 309 페이지

로젤은 점차 레이킨과 깊은 유대 관계를 맺게 되고 둘 사이에는 로맨틱한 기류마저 흐르게 되었다. 동시에 로젤은 누군가를 믿어야 할 지조차 확신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지만 마음 속으로는 세상을 변화시킬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원래대로라면 로젤은 공화국의 법에 따라 다른 '둘째 아이'들처럼 나라를 위해 군인으로 복무한 뒤 그냥 세상에서 사라져야 했다. 하지만 로젤은 더 이상 운명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지 않기로 다짐하고 반역의 뗏목으로, 온갖 살인 음모의 중심이 될 것이라는 사실까지 받아들이기로 한다. 하지만 로젤은 자신의 계획과 달리, 결국 반란군에 맞서기 위해 결성된 정부 군에 강제로 합류하게 되고 공화국의 군대 지도자로 추앙되었다. 그는 이제 새로운 세상의 주인과 그녀의 무자비한 가족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피 튀기는 전쟁 한 가운데에 놓이게 되었다. 그러나 설상가상으로 반란 군인 한 명이 로젤을 반란 군의 음모로 끌어들인다. 이때부터 공화국은 암살과 음모로 갈기갈기 찢어지고 로젤은 자신이 가자고 있는 충성심과 명예, 사랑을 시험 받게 될 대대적인 전투에 참여하게 되었다.

3권: REBEL BORN (반역의 아이) / 출간일: 2019년 6월 4일, 분량: 332 페이지

로젤은 이제 다양한 정체성을 가지게 되었다. 그녀는 음모의 희생자이자 반군을 위해 일하는 스파이, 그리고 페이트 공화국의 상속자였다. 그러던 어느 날 로젤은 무자비한 에이전트 크로우 소속 한 요원에게 납치당하고 말았다. 그녀를 이 혼란 속에서 승리를 쟁취해줄 미끼로 쓰기 위해서였다. 정신을 잃은 지, 한 달이 지나고 로젤은 자신이 크로우와 그가 만든 새로운 세상의 질서에 조종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하지만 레이킨의 형이자 유능한 과학자인 랜섬은 비밀리에 전사 로젤을 더 강인하게 만들어줄 놀라운 장치를 그녀의 몸에 이식했다. 이로써 로젤은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막강한 존재가 되었다. 로젤은 이제 그간의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자신이 가지게 된 새로운 능력에 적응해야만 했다. 로젤은 크로우에게서 벗어나 다시 레이킨과 클립톤과 만나 동맹을 이루고 세상을 구할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한다. 이제 인간이라기 보다는 로봇 혹은 신과 같은 존재가 된 로젤은 과연 공화국의 말도 안 되는 정책을 파기하고 크로우에 맞서 세상을 구할 수 있을까? 놀라운 상상력을 바탕으로 한 로맨스, 액션, 공상과학 소설과 같은 다양한 장르를 넘나드는 디스토피안 소설이다.

<저자 소개>

에이미 바르톨 (Amy Bartol)은 USA 투데이 베스트셀러 『Secondborn Series』의 작가이자, 『The Premonition Series』, 『The Cricket Series』, 『The Divided』의 작가이다.

제목 : THE FIRST LADY

가제 : 더 퍼스트 레이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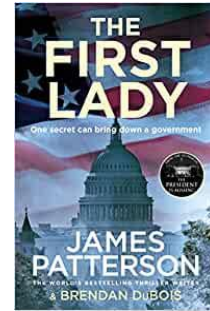
저자 : James Patterson

출판사: Century

발행일: 2018년 12월 13일

분량 : 368 페이지

장르 : 스릴러



★ “스릴러 줄거리에 특별한 재능을 가진 작가”- 「가디언」

잘생긴 외모와 뛰어난 능력으로 국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던 해리슨 터커 대통령은 하루 아침에 모든 것을 잃게 될 위기에 처했다. 만천하에 그의 치부가 공개되었고 그를 다시 재선에서 승리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이제 그의 아내이자 영부인인 그레이스 한 사람뿐이었다.

전 상원의원이자, 전 오하이오 주지사 해리슨 터커는 이제 어엿한 세계 지도자, 즉 미국의 대통령이었다. 그리고 지금은 이른 아침 애틀랜타의 한 호텔 방 침대에 누워 그가 제일 좋아하는 TV 시리즈인 '하우스 오브 카드'에 관한 비하인드 다큐를 보고 있었다.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곁에는 다정하게 그의 등을 쓰다듬고 있는 태미 도일이 함께였다. 해리슨은 태미와 사랑을 나누는 중에도 자연스럽게 자신의 아내이자 퍼스트 레이디인 그레이스를 떠올렸다. 해리슨은 로비스트인 태미와 이런 아슬아슬한 관계를 이어가는 것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바쁜 업무와 중대한 결정들로 인한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자 기쁨이 바로 태미였기 때문에 쉽게 그녀를 저버릴 수 없었다. 하지만 태미와 함께 호텔 밖을 나온 순간, 그의 얼굴은 기자들의 카메라에서 쉴 새 없이 터져 나오는 플래시 세례로 뒤덮이고 말았다.

아침에 있었던 난리통에서 겨우 빠져나와 에어포스에 탑승한 해리슨은 이제 살아남을 길을 모색해야 했다. 4 주 뒤 재선이 코 앞으로 다가오고 있는 중인 이 시점에서 일어난 이 엄청난 스캔들 때문에 평소 그를 지지하던 유명 칼럼니스트들과 영향력을 가진 블로거들이 그의 지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었기 때문이다. 어쩌면 캘리포니아의 주지사에게 그의 자리를 빼앗길지도 모르는 상황이었다. 그의 오랜 참모인 파커 또한 그를 질타했다. 파커가 생각해낸 해결책은 매우 간단했다. 지금 당장 그레이스에게 전화를 걸어 진심으로 사과한 다음 며칠 뒤 언론에 두 부부가 손을 잡고 거니는 모습과 대통령이 유명 종교지도자와 지속적으로 만나며 상담을 받고 있다는 뉴스를 은근슬쩍 언론에 흘리면 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와중에도 해리슨은 아내가 받았을 상처와 재선 가능성보다 태미를 생각했다.

그즈음, 그레이스는 백악관에서 열린 노숙 아동들을 만나는 모임에 참여 중이었다. 그녀는 사진 찍기 좋은 용도로 이곳까지 찾아온 아이들을 바라보며 아직까지도 어린 아이들을 바깥에서

살 수밖에 없도록 만든 무능력 정부에 대해서 비판하고 싶었지만 꼭 참고 미소를 짓고 있었다. 행사가 한 참 진행 중이던 그때, 그레이스의 곁으로 그녀의 비서진 중 한명인 니키가 다급히 찾아왔다. 니키는 그레이스에게 나쁜 일이 일어났음을 알렸고 그녀는 곧 바로 뉴스를 틀었다. 뉴스 속 몹시 당황한 표정을 짓고 있는 해리슨과 그의 팔에 팔짱을 끼고 있는 다른 여자의 모습을 본 그녀는 이제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고 곧 바로 집무실로 돌아갔다. 그리고 갑자기 그녀의 개인 핫라인 전화가 울리는 바람에 화들짝 놀라고 말았다. 전화를 건 사람은 남편 해리슨이었다. 그는 거짓 사과를 했고 어떻게든 그녀와 이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다고 말했지만 그레이스는 그의 전화를 매몰차게 끊어버렸다.

전화의 효과가 미미하자 해리슨은 다시 파커에게 불평을 늘어놓았다. 하지만 파커는 이에 굴하지 않았고 비행기가 착륙할 때까지 해리슨을 이 난국에서 구하기 위한 방법을 생각하느라 분주하게 머리를 굴렸다. 그는 대통령을 막는 존재라면 그게 설사 대통령의 아내라도 가리지 않고 처리해야겠다고 다짐했다.

남편과 통화 후 그레이스는 앞으로의 모든 일정을 취소했고 그녀의 비서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백악관을 떠나기로 했다. 얼마 후 불법 이민자들이 모여 있는 버지니아 주 한 말 농장에서 그레이스는 갑자기 사라졌고 그녀의 경호원들은 그레이스를 찾기 시작했지만 몇 시간이 지나도록 그녀의 행방은 오리무중이었다. 같은 시각, 파커는 대통령 경호 담당 요원 쉐리에게 그레이스를 찾아올 것을 명령했다. 쉐리는 원칙에 따라 자신의 본업에 충실하고자 했지만 냉담하고 무자비한 파커의 명령을 차마 거절하지 못하고 그 제안을 수락했다. 하지만 여전히 찝찝한 점이 있었는데 그건 바로 파커의 목적이 영부인을 찾아 백악관으로 데려오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는 이 모든 결정을 대통령인 해리슨과는 전혀 상의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쉐리는 새로운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영부인 경호팀에 합류했지만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영부인 실종 사건 초반만해도 대통령을 비롯한 대통령 참모진들은 그레이스가 단순히 남편의 배신으로 인해 화가난 나머지 모든 이들과의 연락까지 끊고 어딘가에 칩거하며 고통에서 회복 중일 것이라 여겼다. 하지만 얼마 백악관으로 그레이스의 것으로 추정되는 손가락 하나와 영부인의 몸값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긴 협박 편지 한 통이 도착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해리슨과 백악관 사람들은 그녀의 실종 뒤에 더 사악한 음모가 웅크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한편, 예상대로 해리슨은 재선에서 실패할 위기에 처할 것임이 확실해지고 지금 당장 그레이스를 곁으로 데려와야만 했다. 영부인은 단순히 백악관에서 도망친 것일까, 아니면 정말 위험한 음모의 덫에 걸리고 만 것일까? 정치적 암투와 인간의 내밀한 갈등을 흥미롭게 묘사한 흡입력 있는 스릴러이다.

<저자 소개>

제임스 패터슨 (James Patterson)은 인기 작가로 그의 전작들은 전 세계적으로 3 억 8,500 만 부 이상 판매된 바 있다. 그 중에는 특히 무려 20 년 동안 인 『Alex Cross』 , 『Women 's Murder Club』 , 『Detective Michael Bennett』 , 『Private novels』 가 있다.

NON-FICTION

제목 : THE OTHERS

가제 : 다른 지성들과의 만남

저자 : James Bridle

출판사: Penguin Press (UK), Farrar, Straus & Giroux (US)

발행일: 2021년 9월 예정

분량 : 약 360 페이지

장르 : 인문



* 지구상 다양한 존재들이 가진 지성에 대해서 살펴보고 인공지능 시대를 맞이하기 위한 준비서

'지적이다 (intelligent)'라는 말에는 정확히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일까? 이는 인간만의 고유한 특성일까, 아님 육체를 가진 다른 존재들이나 나무 혹은 돌, 실리콘으로 만들어진 다른 물체들 또한 가지고 있는 공통 자질인 것일까? 지난 몇 년 사이 인공지능 분야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성장을 이루었다. 공상 과학 소설 애독자들이 꿈꾸던 세상은 이제 한층 더 가까이 우리 눈 앞에 다가와 있다. 하지만 기술이 발전한다고 해서 인간의 삶의 질도 함께 더 나아질 수 있을까?

시는 점점 발전을 거듭하면서 우리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어딘지 모르게 섬뜩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프랑켄슈타인 박사가 자신이 창조한 끔찍한 괴물을 보면서 느꼈을 법한 묘한 기분이랄까? 인간은 자신이 창조한 이 기이한 발명품을 보면서 점차 이들이 우리 존재를 대신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저자 제임스 브라이들은 우리가 여태 놓치고 있었던 점 하나를 꼬집는다. 일명 '지성'을 가진 존재는 언제나 우리 곁에 있었다는 사실이다. 사실 잘 생각해보면 지금 이순간에도 우리를 둘러싼 많은 동식물들과 자연계는 아주 천천히 그들이 가진 복잡성과 지적인 요소들을 드러내고 있다. 또한 그는 일반적으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인류의 지성이 이룩한 결과들을 쉽게 간과하고 있으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성과 그 가능성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런데도 우리는 유독 인간이 인류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해 구축한 기술이 우리의 멸종의 원인이 될지도 모른다고 막연히 두려워하고 있다. 저자는 우리가 미지의 존재였던 자연과 동물, 식물들을 분석하고 이해할 수 있었던 것처럼 인공지능이라는 새로운 존재 또한 우리의 이해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인류는 이 첨단 기술들을 통해 어떤 것을 배울 수 있을까? 인간은 이 시대에 맞춰 어떤 모습으로 변화해야 할까?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은 우리 자신과 기술, 사회, 정치를 어떻게 변화시키게 될까? 인간처럼 고도의 지능을 가지고 있고 심지어는 감정까지 가지게 될지도 모르는 인간이 아닌 존재와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평등한 관계를 이루어 갈 수 있을까? 저자는 이 책을 통해, 바로 이 질문들에 대해 답한다. 하지만 이 답은 결코 한 가지 전문 분야를 통해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사실 저자가 이 책을 쓰게 된 계기는 풀리처 상 수상작 소설 『OVERSTORY』와 생물학자 수전 시머드 교수와의 만남으로부터 시작되었는데 저자는 이 두 만남을 통해 우리를 둘러싼 모든 현상이 문학, 예술, 과학, 기술과 총체적으로 연결 되어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한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저자는 과학과 컴퓨터 기술은 물론이고 문학, 예술 등 다양한 분야를 넘나들며 미래에서 살아남기 위해 필수적인 질문 거리들과 그에 따른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다양한 관점에서 다가올 미래에 대해 미리 생각해보고 막연한 두려움에서 벗어나 현명한 답을 찾아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흥미로운 책이다.

<목차>

서문

제1장. 낯선 기계들

제2장. 동물의 정신 세계

제3장. 기이한 삶

제4장. 다른 정치학

제5장. 인간이 아닌 존재에게 말 걸기

제6장. 인지적 다양성

제7장. 무작위로 나타난 길

제8장. 이상한 기계들

제9장. 단결성

(이하 생략, 총 9장으로 구성)

<저자 소개>

제임스 브라이들 (James Bridle)은 문학 편집자, 기술자, 작가, 기자 및 시각 예술가이다. 또한 그는 가디언, 옵저버를 비롯한 유명 매체에 글을 기고하고 있다. 전작으로는 『New Dark Age』가 있다.

제목 : MAKE YOUR BRAIN WORK

가제 : 우리 뇌 활용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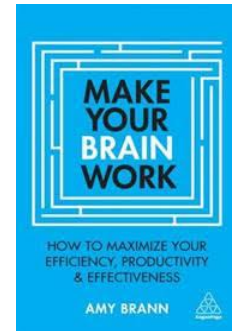
저자 : Amy Brann

출판사: Kogan Page

발행일: 2020년 1월 3일

분량 : 312 페이지

장르 : 과학, 자기계발



*** 우리 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지, 타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법을 소개함으로써 일상 속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주는 책. - Infusionsoft 창립자, 스캇 마르티노**

모두가 알고 있다시피 뇌는 인간의 장기 중 가장 놀라운 기관이다. 뇌는 우리의 즉각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역할 및 업무에 더 시간을 할애할지 빨리 퇴근해서 가족과 시간을 더 보낼지 혹은 헬스장에 갈지 초콜릿 바를 먹을 지와 같은 우리 인생에서 일어난 사소하고도 중대한 선택들을 처리하는 가장 바쁜 기관이다. 하지만 뇌를 가졌다고 해서 누구나 다 똑 같은 능력을 발휘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뛰어난 사람들이 있지만 이러한 특별한 사람들이 사적인 영역에서나 공적인 영역에서 항상 다 자신의 기대를 충족할 만큼 만족하며 살고 있지는 않다. 반면 어떤 이들은 자신보다 더 똑똑하고 잘 나가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스스로와 비교하면서 왠지 속임수에 빠진 것 같은 찝찝한 기분에 사로잡혀 살아가기도 한다. 이들의 눈엔 ‘그 잘나가는 사람들’은 왠지 모르게 훨씬 더 어른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남들보다 더 준비된 사람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신경과학과 리더십의 관계를 중점으로 연구하고 있는 이 책의 저자 에이미 브란은 ‘그 잘나가는 사람들’의 뇌가 남들과 다른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남들보다 뛰어난 성과를 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 대부분이 인생의 어느 한 시점에서 뇌를 활용하는 특별한 훈련과정을 이수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책은 바로 ‘그 잘나가는 사람들’과 달리 뇌의 작용과 우리 자신의 역량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 한 번도 배울 기회가 없었던 사람들, 전문 훈련 과정을 경험해 볼 수 없었던 사람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제공해줄 책이다.

지난 20여 년간 무엇이 우리의 특정 행동을 유발하고 그로 인해 어떤 결과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끊임없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왔고 그로 인해 많은 사실들이 발견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엄청나게 유용한 정보에 대해서 무지한 채로 살아가고 있다. 게다가 50년 전에 개발된 구식 연구 방법과 이미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명된 철 지난 연구론이 아직도 성행하고 있으며 뇌와 한 개인의 성공적인 직장 생활의 연계성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것이다.

신경과학이론과 리더십, 행동학에 대해서 오랫동안 연구해온 이 책의 저자는 기업 현장에서도

역시 아직도 이러한 잘못된 지식과 방법이 통용되고 있을 수없이 목격해왔다고 한다. 따라서 이 책에서 저자는 정확한 연구 자료와 지표를 통해 우리 삶의 가장 큰 자원인 뇌가 어떤 방식으로 작용하는지 알아보고 어떻게 하면 뇌를 활용하여 우리의 수행성을 높일 수 있을지 소개한다. 또한 저자는 상황에 맞는 명확한 예와 그에 맞는 실용적인 조언을 통해 개인 및 기업이 어떻게 효과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지와 또는 피해야 할 함정들을 짚어준다. 똑똑하고 정확한 방식으로 뇌를 활용하여 생산적이고 효과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뇌 활용서'이다.

<목차>

서문

-이 책을 읽는 방법

코치를 만나라

전문가들을 만나라

제1부 당신

제1장. 마시멜로우가 당신의 성공을 예측해줄까?

가능성들

우선순위 정하기

당신의 목표를 그려보아라

마음 속으로 먼저 목표를 정하고 시작하는 것

전액골 피질

실용적으로 우선순위 정하기

새로운 정보

멀티 혹은 모노

당신의 플라스틱 뇌

유연하게 생각하기

(이하 생략, 총 3부 15장으로 구성)

<저자 소개>

에이미 브랜 (Amy Brann)은 저자이자 글로벌 연사이며 리더십과 의사소통 개발 전문 코치이다. 또한 그녀는 비즈니스와 신경과학을 접목시켜 기업 및 조직의 리더십 개발에 도움을 주는 회사인 'Synaptic Potential'에서 일하고 있다. 저작으로는 『Make Your Brain Work』, 『Neuroscience for Coaches』이 있다.

제목 : ACTIVE MEASURES

가제 : 허위 정보 시대의 역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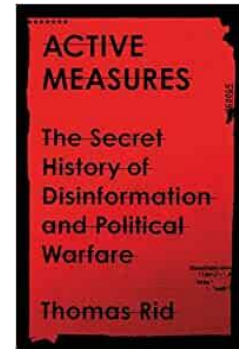
저자 : Thomas Rid

출판사: Farrar, Straus and Giroux

발행일: 2020년 4월 21일

분량 : 528 페이지

장르 : 인문, 역사



★ 20 세기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스파이 기관들이 꾸며낸 조작과 음모의 시대였다. 저자는 디지털 포렌식 기법을 활용하여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역사와 현재에 대해 지금까지는 한번도 들어 본적 없는 이야기들을 들려준다. পুল리처상 수상작의 저자- 『Gulag: A History』, 앤 아펠바움

우리는 현재, 조직적으로 계획된 속임수를 활용하여 잘못된 정보를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이른바 '허위정보 시대 (the age of disinformation)'에 살고 있다. 전세계에 포진해 있는 스파이 기관들은 자유주의 민주주의의 기초인 즉, 진실과 신뢰성을 약화시키기 위한 데이터 조작 및 유출, 해킹들을 위해 막대한 자원을 투입하고 있다. 존스 홉킨스 대학의 교수이자 기술 및 국가 안보 분야의 저명한 전문가인 토마스 리드 교수는 세계 최초로 이 사태에 대해 경고의 목소리를 제기한 사람이다. 2016년 미 대선 전에도 그는 러시아 군사 정보국이 매우 교묘한 방식으로 민주주의 정치 질서를 파괴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었다. 또한 그의 주장과 역사적 사실들이 증명하듯 이러한 은밀한 움직임은 결코 우리 역사에서 새로운 일이 아니었다.

'허위정보 시대'는 사실상 1920년대 초에 시작되었다. 당시 CIA에서는 이 현상을 '정치 전쟁'이라고 불렀고 이 정치 전쟁이 크게 4가지 흐름 속에서 급격히 성장 중이라고 분석한 바 있었다. 그 첫 번째 흐름은 이전 보다 더 많은 일반 시민들이 라디오를 통해 뉴스에 접근할 수 있게 되자, 적대국들이 자신들의 목표에 맞게 조작한 정보를 상대 국가 국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여론을 왜곡하는 방식으로 시작되었다. 그 두 번째 흐름 속에서 이 허위 정보 생산 집단들은 냉전 기간 동안 CIA를 그 타깃으로 삼았으며 세 번째 흐름에서는 1970년대 소비에트 관료주의가 그 공격 대상이었다. 그리고 지금은 네 번째 흐름에 속한 시점으로 미국 정부 스파이 관료들은 연중 무휴, 24시간 내내 활개를 치고 있는 컴퓨터 해커들은 쫓고 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전세계 10개 이상의 언어로 작성된 기밀 자료와 현직 및 전직 요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소름 끼치는 지성 집단들의 활동과 비밀 집단들에 대해 소개한다. 그는 지난 시간 동안 전세계에서 벌어진 중요한 작전들과 그 뒤에 숨어있는 전문적이고 조직적인 거짓말과 혼란에 대해 파헤친다. 그 중에는 뉴욕 경찰청장을 몰아낸 백인 러시아 남성 집단과 KGB가 설계한 반유대주의 증오 캠페인, 베를린 장벽 건설에 대한 이야기가 포함 되어있다. 뿐만 아니라 그는 CIA가 독일 최고의 재즈 잡지를 제작하는 출판사를 운영하고 있는 나치 전범이자 잠수함 사령관이었던 자의 유명 출판사를 적극 후원했다는 사실을 폭로한다. 막으로, 그는 2016 년 미

대전 당시 특히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활동했던 악명 높은 '인터넷 트롤 집단'이 수행했던 역할과 그 그림자에 숨어 활동중인 더 악질적인 집단들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뉴미디어의 등장과 가짜 뉴스가 판을 치는 이 시대에서 현재와 과거를 오가며 일반 독자들이 기만과 속임수에서 벗어나 올바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이다.

<목차>

허위 정보란 무엇인가? What is Disinformation? 000

1921-1945: 속임수

제1장. 신뢰 3

제2장. 일본 판 ‘나의 투쟁’

제3장. 선거 위조죄

제4장. 미국의 허위 정보

제5장. 투쟁 그룹

제6장. LC-Cassock, Inc.

제7장. 가짜 후퇴

제8장. 프로젝트팀

제9장. 붉은 만자(卍字), 나치의 상징

제10장. 인종 공학

(이하 생략, 총 31장으로 구성)

<저자 소개>

토마스 리드 (Thomas Rid)는 존스 홉킨스 대학의 교수이며 미국 상원 정보위원회 앞에서 미국과 세계 여론을 혼란에 빠트리고 있는 거짓 정보에 대해 폭로한 바 있다.

제목 : HEALTH REVOLUTION

가제 : 건강 혁명의 비결, 염증에 맞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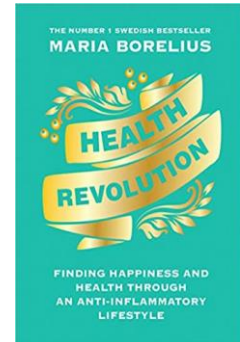
저자 : Maria Borelius

출판사: HQ

발행일: 2019년 6월 27일

분량 : 384 페이지

장르 : 건강



*** 염증 수치를 낮추는 식습관과 건강한 생활 습관을 통해 건강을 회복할 수 있게 도와줄 건강 안내서, 스웨덴 베스트 셀러**

스웨덴의 과학 전문 저널리스트인 저자 마리아 보렐리우스는 쉰 넷이었을 즈음 폐경으로 인한 후유증과 함께 요통 및 극심한 피로감뿐만 아니라 우울증 증상까지 겪게 되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인생이 여기서 끝나버렸다는 자괴감 속에서 하루 하루를 보내 던 중 새로운 생활 방식을 시도했고 그 결과 단 몇 달 만에 이 고통에서 벗어났다. 이후 그녀는 젊은 시절 가장 혈기가 왕성했던 시절보다 더 큰 행복감을 느끼기 시작했고 온 몸에서 통증이 사라지고 오히려 더 강해진 느낌을 받게 되었다. 또한 그녀는 일련의 놀라운 우연한 사건들을 통해, 스스로 질병을 치료하고 예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노화까지 늦출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발견되었다. 하지만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저자는 이 모든 변화가 염증수치를 낮춰주는 식단을 시작하면서부터 시작된 합리적이 변화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후 저자는 항염증과 관련된 과학적 지식에 대해 연구하기 시작했고 단순한 식단 이상의 놀라운 사실들을 알게 되었다. 더 나아가 저자는 완전히 새로운 생활 양식의 윤곽을 그려냈고 이를 자신의 생활에 적용한 실제 경험자를 통해 건강한 삶의 비결을 찾아냈다. 또한 그녀는 세계 곳곳을 찾아가 각국의 전문가들을 직접 만났다. 캐나다로 건너간 그녀는 혁신적이고 고무적인 건강 양식을 전수받았고 이어 스웨덴에서는 건강 양식 연구 분야 최전선에서 활약 중인 한 교수를 만나 관장 치료와 병행되는 인도식 스파법에 대해 배웠다. 뿐만 아니라 미국 로스 앤젤레스는 모두가 기이하게 생각할 정도로 많은 주민들이 장수를 누리며 살고 있는 한 종교 집단을 찾아가 그들의 건강 문화를 조사했고 스웨덴의 최고 유전학자, 캘리포니아의 힙합 요가 강사 등 다양한 방식으로 건강한 삶을 도모하며 살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 직접 인터뷰했다. 그리고 이에 더해 저자는 자신이 직접 시험해본 필수 영양소들과 유용한 습관들을 소개하는 데 그 중에는 오메가 3 지방산, 프로바이오틱스, 글루텐, 유당, 명상, 뼈 국물, 요가, 일몰, 염증 추적 및 영성 앱 활용 등이 있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전 세계에서 시행된 획기적인 연구, 고대 인도인들의 평생 동안의 실험을 통해 증명된 의학 시스템인 아유르베다(Ayurveda)를 통해 얻은 결과물을 기반으로 한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한 5 단계 계획을 제시한다. 저자 자신이 온 몸과 마음으로 실제로 겪어보고 발견해

낸 최상의 건강 전략과 건강에 맞까지 더한 다양한 음식들의 레시피, 활력 있는 라이프 스타일을 위한 조언을 통해 독자들이 더 젊게,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줄 책이다.

<목차>

서문 : 이 책은 제가 직접 겪었던 한 여정에 관한 책입니다.

제1장. 새해

제2장. 나의 몸 여정

제3장. 통찰력

제4장. 치유

제5장. 연어와 링곤베리

제6장. 육감

제7장. 숨

제8장. 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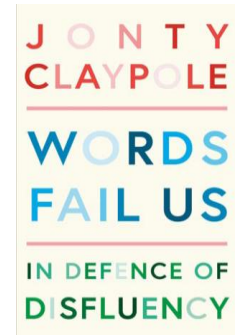
제9장. 블루존

제10장. 경외심

<저자 소개>

마리아 보렐리우스 (Maria Borelius)는 수상경력을 자랑하는 스웨덴 과학 저널리스트이자 의학 및 건강과 관련된 여러 유명한 과학 서적의 저자이다. 또한 그녀는 사회에서 소외된 이민자 여성들이 자신의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Ester Foundation'의 칼럼니스트이자 설립자이며 또한 전 세계 과학 기관, 제약 및 기술 회사의 커뮤니케이션 고문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스웨덴 상무부 장관을 역임한 바 있다.

제목 : WORDS FAIL US
가제 : 유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저자 : Jonty Claypole
출판사: Wellcome Collection
발행일: 2020년 6월 4일
분량 : 224 페이지
장르 : 사회, 인문



★ 평생 말 더듬는 현상을 치료하기 위해 애썼던 저자가 달변가들을 숭배하는 이 세상에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 또한 무한한 가능성과 창의성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책.

유창한 언어 구사력으로 청중을 사로잡고 있는 TED 강연자들, 유려한 말솜씨로 대중을 사로잡고 있는 카리스마 넘치는 정치가들의 연설이 언제나 주목받고 있는 이 시대에서 정확한 발음에 더불어 세련된 화술을 발휘하는 능력은 이제 너무나 중요한 자질이 되어버렸다. 하지만 만약 유창하게 말하기는커녕, 단어 발음조차, 목소리조차 제대로 낼 수 없다면 어떻게 될까? 이 책의 저자 존티 클레이폴은 강도 높은 언어 치료의 세계에서 15년이라는 긴 시간을 보냈다. 그는 아동심리학자와의 상담부터 말을 더듬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여러 캠프들에 참석했고, 노출 요법과 같은 다양한 시도를 통해 그가 언제나 두려워했던 일인 '제대로 말하기'를 시도했다. 하지만 그의 오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의 답변은 늘 '우리는 당신의 말 더듬 현상을 치료할 수 없다.'와 같은 절망적인 이야기 뿐이었고 이로 인해 그는 스스로 자신을 치료하는 긴 여정을 선택했다. 이처럼 그가 이 책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바로 자신이 말할 때처럼 말이 유려하게 이어지지 않고 무너지는 현상에 관한 것이다. 먼저 그는 왜 우리가 그토록 말을 더듬는 현상을 두려워하게 되었는지 혹은 '비정상적'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는지 질문한다.

말을 더듬는 현상은 한 개인의 삶과 관계의 역학 작용 속에서 일어나는 일종의 불균형 현상이다. 또한 예전과 달리 요즘은 비교적 음성의 차이가 신경학과 명백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이 통용되고 있는 동시에 이 현상이 사회적, 문화적 맥락 속에서 발생하는 것이라는 것 드러나고 있다. 즉 말 더듬 현상이 단순히 신경학적인 문제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회 및 문화적 요소와도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말 더듬 현상이나 투렛 증후군을 앓고 있는 사람의 경우 특정 공간에 누구와 함께 있느냐에 따라 그 증상이 심화되거나 오히려 완화되는 결과가 나타난 바 있다. 마찬가지로 실어증을 겪고 있는 사람들 역시 자신이 타인에게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지에 따라 그 증상이 달라진다는 것이 밝혀졌다. 따라서 저자는 흔히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유창성'에 대한 지나친 집착이 우리의 창의력, 진정성 및 설득력을 오히려 방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반문한다. 더 나아가 그는 모든 언어적 차이는 개인의 경험과 마찬가지로 고유한 것이며 사회로부터 차별당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저자는 이 책을 쓰는 고된 여정 속에서 MRI 검사 및 기타 뇌 과학적인 연구 결과를 통해

상대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지는 다른 언어적 특이 현상과 말 더듬 현상에 많은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밝혀냈다. 말 더듬 현상과 투렛 증후군 등 다양한 언어적 현상들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고 그동안 우리 사회가 말 더듬 현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무의식적으로 갖고 있었던 편견과 낙인을 걷어내고 새로운 시각으로 '말 하는 행위'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는 책이다.

<저자 소개>

존티 클레이폴 (Jonty Claypole) BBC 방송국의 예술 부문 국장이며 'Bookseller' 선정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00 인 중 한 명이다.

제목 : CAT

가제 : 고양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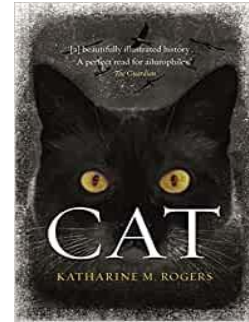
저자 : Katharine Rogers

출판사: Reaktion Books

발행일: 2019년 7월 15일

분량 : 224 페이지

장르 : 인문, 역사



★ "고양이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완벽한 책"- 「가디언」

★ "다양하고 매력적인 이미지들을 통해 우리가 고양이에 대해서 생각하고 느꼈던 역사들을 우아한 방식으로 조사한 내용을 담은 책"- 「인디펜던트」

인류는 진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동물들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왔다. 그 중에서도 고양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집에서 기르는 동물들 중 가장 특별한 동물 중 하나이며 개와 함께, 그 어떤 동물보다 빨리 인간의 생활 깊은 곳으로 들어온 존재이다. 기원전 2000년 고대 이집트에서부터 고양이는 인간들과 함께 어울려 살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처음부터 고양이에게 쥐를 잡는 임무를 맡겼는데 고양이의 습성상 그 임무를 너무나 즐겼기 때문에 고양이는 사실상 단 한번도 인간의 무력에 의해 노동을 한 적이 없었다. 그들은 또한 어떤 성적인 상징을 갖기도 했는데 그 때문인지 고양이는 언제나 매력적인 존재로 여겨졌다. 게다가 고양이들은 개와 달리 특유의 냉담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차마 고양이들을 개들처럼 훈육시킬 엄두조차 내지 않았고 아이러니하게도 확실한 존중까지 보장받게 되었다.

때때로 고양이는 미신적인 존재가 되기도 했다. 특히 중세 초기와 근대에는 고양이가 악마와 결탁한 생명체라는 인식이 퍼져있었다. 게다가 고양이는 개나 다른 가축들과는 달리 인간에 충성심을 보여주거나 인간의 먹이가 될만한 고기를 제공하는 것도 아니었고 소나 말처럼 인간의 노동과 복지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는 동물이 아니었기 때문에 무가치한 존재로 인식된 적도 있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고양이는 철저히 계획된 잔인한 사건이나 사디즘 실현을 위해 사용되기 유용했던 동물이기도 했다. 실제로 고양이는 한 마을의 악을 추방한다는 명목 하에 산 채로 불에 타는 행사에 동원 되기도 했고 아일랜드 속담에 따르면 업무 중 지루함을 느낀 군인들이 종종 고양이 두 쌍의 꼬리를 묶어 강제로 높은 곳에 매단 다음 둘 중 어떤 고양이가 먼저 빠져 나오는지 지켜보며 시간을 때웠다는 말도 있다.

한편 1730 년대 파리에서는 한 고용주가 인쇄공 견습생들이 모여 일하는 곳에 견습생들이 결코 대항할 수 없는, 일종의 관리자급의 대리인 고양이를 데려다 놓은 적이 있었다. 그 당시 고양이는 실용적인 목적을 가지고 기르는 동물에서 반려묘로 그 지위가 변화하고 있었던 시기였다. 견습생들은 고용주가 자신의 반려묘인 일개 고양이보다도 못한 수준으로 자신들을 하찮게 대한다고 생각했고 그 분노를 표출하기 위해 이웃 고양이들을 데려다 죽여버렸다.

이처럼 고양이는 인간과 함께한 기나긴 역사 속에서 때로는 신비롭고 우아한 존재로 칭송 받았으며 악의 상징으로 여겨지기도 했다. 매혹적인 삽화들과 더불어 역사와 문학, 예술에서 나타난 고양이들의 다양한 모습을 살펴보고 고양이와 인간의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해주는 흥미로운 책이다.

<목차>

제1장. 야생 고양이에서 쥐 잡는 집 고양이가 되기까지

제2장. 고양이의 마법, 선과 악

제3장. 집과 살롱에 사는 고양이

제4장. 고양이와 여성들

제5장. 개별적인 관점에서 바라본 고양이

제6장. 역설이 가진 매혹

<저자 소개>

캐서린 M. 로저스 (Katharine M. Rogers)는 편집자이자 프리랜서 작가로 전작으로는 『Pork: A Global History』이 있다.